

교회 소식

예배

- 1. 수요일예배**
10월 29일 수요일예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드립니다.
- 2.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2주년 감사 및 추계부흥성회**
주제: "감사와 찬양"(시 118:29)
11월 5일(수) 오후 7시 45분 / 엄진웅 목사(여의도순복음문막교회)
11월 6일(목) 오후 7시 45분 / 이제순 목사(순복음살롱교회)
11월 7일(금) 오후 8시 10분 / 엄태욱 목사(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추계부흥성회때 교회버스 1호차와 2호차 운행을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금요성령대망회보다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금요일은 기존 시간과 동일합니다.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 1. 당회**
일시: 10월 26일(주일) 오후 1시 / 장로회실
- 2. 권사회 정기예배**
일시: 10월 26일(주일) 오후 1시 / 권사회실
- 3.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매주일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 4. 유아유치부 전도 모임**
일시: 매주일 오전 10시 45분 / 교회 옆 놀이터

안내

- 1. 미안마 RTN순복음교회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감사의 2주년, 기쁨으로 세우는 교회"
일시: 11월 2일 오후 12시~3시 / 장소: 교회 1층 및 앞마당
*물품기증은 각 선교회 담당교역자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봉사자는 "광나루2 주차장"(강동구 천호동 483-8)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분리수거**
각 기관과 선교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 1. 결혼**
장성진 전도사(중고등부, 행정실)
일시: 11월 2일(토) / 오후 1시
장소: 여의도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홀

후원 선교사 / 교회

<후원 선교사> <후원 교회>
네팸_김진만 선교사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레바논_김중현 선교사
미안마_배수현 선교사

온 / 라 / 인 / 헌 / 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예배와 교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교회학교 주일예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정기예배

새벽예배(월)	오전 5시 30분	대성전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일예배(위성)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유튜브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교 / 회 / 주 / 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하 / 남 / 기 / 도 / 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홈 / 페 / 이 / 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10월 26일

통 3권<제 43호>

주 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7월 20일 개교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교회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주/일/예/배	*다같이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잠 8:17~18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384장(통 434)
대표기도	1부	김해숙 전도사
	2부	송원홍 협동장로
	3부	김병환 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창 12:1~3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4부(위성)	이영훈 목사
	4부(청년)	조영태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이현식 안수집사
	2부	임경린 안수집사
	3부	유정열 안수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금/요/성/령/대/망/회	10월 31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이화수 권사	안원준 안수집사	

예/배/위/원	11월 2일 주일 11월 7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영자 목사	윤재선 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김영진 장로	이현식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김병환 장로	정복래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망회	찬양팀	김영진 장로	윤재선 집사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창세기 12장 1~3절)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Being)으로 부르시고, 기능적(Doing)으로 부르십니다. 존재론적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르심이고, 기능적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직분자 혹은 일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 모두는 존재론적인 부르심과 기능적인 부르심을 각각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체험과 능력의 체험 모두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존재와 기능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이중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믿음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범입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 “가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복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론적인 부르심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신 것(고전 3:16),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복의 근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적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나라

의 대사와 같은 권위(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사명을 위해 주신 힘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에 관한 부르심과 약속과도 동일합니다(마 16:18~19).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2. 순종을 위한 첫걸음

‘떠나고, 가는 것’은 순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라는 것은 나의 존재,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의지하는 곳(수단, 힘을 얻는 대상 등)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삶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우리의 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여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히 11:8). 많은 착오와 연단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으며,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시작입니다.

3.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1:29).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인지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로 인해 가족과 사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꿈꾸며, 바라보고 축복하며,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